

머리말

—생츠했리교회 측의 주장은 「반대파」와 같은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본부는 반통일교회 활동을 해 온 이른바 「반대목사」의 비판에 대하여 오랫동안 대응해 왔는데, 최근 참아버님이나 교회본부를 비판하는 「생츠했리교회」측의 주장을 보면 그 내용은 반대파가 해 온 비판 및 언행과 이상하리만큼 비슷하여, 같은 “영적 배경”을 느끼게 됩니다.

① 교주가 음란하다?

반대목사들은 오랫동안 「문선명은 “피가름”을 하면서 6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60마리아가 있다」는 등 교주를 비판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신자를 탈회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은 「『6마리아』니 뭣이니 하는 박정화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말씀선집 306—241)라고 말씀하시며, 6마리아를 부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절대 모델성 완성을 위한 그 삶」(『평화신경』220쪽)이었다고 회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6마리아의 비극』의 저자인 박정화 씨는 그후 저서 『나는 배신자』에서 『6마리아의 비극』의 내용은 조작이며, 허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각지에서 보고회를 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츠했리교회에서는 「6마리아」가 당연히 있었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언동은 반대파의 비판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6마리아」를 말하는 그들의 언설은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순결」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② 「한풀이」가 동기가 되어 있다?

반대목사들은 참아버님을 비판할 때 「문선명은 일본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동기로 일본 사람에게 고액현금을 요구하는 등 한풀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님은 일본의 장래를 생각하고, 일본의 번영을 소원하셨으므로 반대파의 비판은 완전히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최근 생츠했리교회 측이 하는 참아버님 비판으로 「어머님은 아버님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으며, 그 한풀이를 하려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며, 반대파의 수법과 비슷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머님의 모습은 모든 것을 받아 들이고, 원수를 감싸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참아버님은 「어머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어머님으로서 자기의 책임분담을 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마운 것입니다」(「패밀리」2006년 9월호, 31쪽)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님께서 언제나 「원수관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생활해 오셨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③ 말씀과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2천년 전 유태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을 비판할 때, 「성서(구약성서)의 율법과 모순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서의 성구인용이 잘못되어 있다」등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반대목사는 「통일교회(현 가정연합)는 성서(신약성서)의 복음과 모순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구의 인용이 잘못되어 있다」등, 같은 양상의 비판을 전개하여 신자를 탈회설득해 왔습니다.

최근 생츠퍼리교회 측이 하는 비판도 「어머님과 가정연합 본부는 아버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8 대교재교본 『천성경』 (성약성서) 까지도 폐기하고, 그 가르침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사실에 반하는 말을 하는 등 「가정연합에서 빨리 탈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동은 반대파가 해 온 탈퇴설득 수단을 방불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비판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④ 교회 간부는 부패 - 타락해 있다?

반대파는 「통일교회 간부는 공금횡령을 하고, 자기 보신하는 저속한 인물이 많다」고 하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 비판을 진짜라고 받아들여 탈퇴하여 본부에 「탈퇴서」를 우편으로 보내온 전 신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생츠퍼리교회 측이 하고 있는 가정연합 본부의 비판은 놀라울 정도로 이 반대파의 수법과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납치감금을 동반한 탈퇴설득사건이 부쩍 줄어들어, 효과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반대목사의 배후에 있던 “영적 배경”이 이제 「생츠퍼리교회」측 사람들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하늘의 섭리를 지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대파는 전술한 것같이 비판 내용을 「납치감금」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신자를 탈퇴시켰습니다. 그러한 것과 같은 내용, 같은 수법이 참자녀님이라는 “내부”를 가장하여 지금 우리에게 소리없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어한다”고 하는 내적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납치감금」에 의한 탈퇴설득법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갖고 신자를 탈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참부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무후무한 참부모가 현현한 시대가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2400~2401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참부모님, 즉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이야말로 유일의 「참부모」이며, 유일의 구세주입니다. 그 유일의 「참부모」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생츠퍼리교회 측의 교묘한 수법은 사탄의 수법 그 자체입니다.

지금 「참부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신 참아버님의 말씀에 반하여 그들은 자녀님을 「제 2의 참부모」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적그리스도」「거짓 참부모」가 되어 통일원리를 가르치고, 참부모님의 말씀의 진수인 「참부모」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원리집단 「생츠퍼리교회」등의 언동에 현혹되어 “전무후무”한 참부모님이신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들은 충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천일국의 「절대중심」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 참아버님의 소원은 통일원리, 참부모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부모」가 현현하신 것을 74 억 인류에게 알려 참아버님을 중심으로 “가르침의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2017 년 2 월 9 일

목 차

머리말 / 1

2.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 4

- (19) 문형진 님은 참부모님으로부터 「왕권」을 승계받지 않았다——문형진 님은 참자녀의 입장을 대표해서 식전에 동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4
- (20) 「천일국 4 대성물은 “가짜”며, 그 성주를 마시는 것은 “타락행위”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8
- (21) 참어머님도 「메시아」다——제 2 탄 / 12
- (22) 아버님과 더불어 어머님도 「하나님의 입장」 이시다 / 13
- (23) 「2012 년 8 월 3 일의 마지막 혼동회에서 아버님은 『모든 것을 망친 엄마와 김효울은 책임져』라고 말씀하셨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 / 16
- (24)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 관한 어머님 비판에 대한 응답——질책의 말씀은 어머님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다 / 16
- (25)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서 아버님의 “신관”에 관한 중요한 말씀——“어머니가 없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싸우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 19
- (26) 분파의 말씀 개조에 요주의 / 20
- (27) 인간시조인 「참부모」에게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25
- (28) 2012 년 1 월 19 일의 「선포식」의 진상—자녀님과 축복가정의 부족함을 중재하시는 어머님 / 29
- (29)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논리의 악용에 대하여——재림주가 다음 대에게 연장되는 섭리는 없다 / 33
- (30) 「제 2 대왕」을 자칭하는 것은 「만왕의 왕」에 대한 반역행위 / 36
- (31) 「어머님은 육적 타락을 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36
- (32)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생명유지장치를 떼어 『안락사』 시키려 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37
- (33) 천일국의 영원한 중심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다——「참아버지」와 더불어 「참어머니」를 중시해야 한다 / 41

2.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2015년 7월 28일자로 일본통일교회(현 가정연합) 전 회장, 에리카와 야스에 씨가 「탈회서」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문형진님을 중심한 미국 생츠퍼리교회 하의 일본 생츠퍼리협회 총회장 겸 협회장으로 출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생츠퍼리교회는 참아버님의 말씀과 전통이 참여머님에 의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은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같이 세워 오신 승리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참부모님을 중심한 통일가의 일체화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 지면관계상 문자 수를 제한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것은 「참부모님 선포 사이트(<http://trueparents.jp/>)」를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성장연구원)

注 : 본문 가운데 참부모님의 말씀 및 『원리강론』 인용은 바탕색을 깔아 구별하고 있습니다.

(19) 문형진님은 참부모님으로부터 「왕권」을 승계받지 않았다——문형진님은 참자녀의 입장을 대표해서 식전에 동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주 : 이것은 30의 내용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대관식」은 형진님의 왕권계승 의식이 아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들의 「**문형진님 가정은 참부모님의 『왕권』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왕권 계승**」이라고 근거로 하는 것이 2009년 1월 15일에 한국, 동년 1월 31일에 한국과 미국의, 도합 3번에 걸쳐 거행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대관식」【**사진 1**】이며, 「**그때 왕권이 승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식전은 그 명칭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심, 일체, 일념, 일행이 되어 「만왕의 왕」으로 대관하신 식전이이지, 형진님이 「왕권」을 승계한 식이 아닙니다.

형진님이 참부모님으로부터 「왕권」을 승계하여 “왕”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이 식전은 하나님과 완전일체가 된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대관하시는 식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확립한 참부모님을 중심한 「참가정」의 사위기대의 입장으로 형진님이 같이 있어야 그 은혜를 받으므로 참자녀의 입장을 대표하여 식전에 동참한 것

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식전은 어디까지나 만왕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해방권대관식”이었고, 그 주역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었습니다. 결코 「왕」의 입장이 자녀님 대로 위양, 승계된 것은 아닙니다.

식전의 「식순」 「사회자의 말」 및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한 마디도 「형진님에게 “왕권”을 계



승합니다」고 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이 식전에서의 「사회자의 말」 「식순」 「말씀」 모두는 사전에 아버지께서 한마디 한마디 다 체크하시고, 사회자에 대해서도 「그걸 말하라」고 지도하셨습니다.

이 식전에서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천복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경륜하는 섭리적 역사의 출정식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대전환기의 소용돌이를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종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실체로서 만유를 통치하는 횡적 만왕의 왕, 참부모님의 대관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이상 귀하고, 역사적인 순간이 또 언제 찾아오겠습니까?」(「패밀리」 2009 년 3 월호, 7 쪽)

참아버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대관식이 「종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실체로 만유를 통치하는 횡적 만왕의 왕, 참부모님의 대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전은 「하나님」 및 그 실체의 입장에 계신 「참부모님」의 대관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식전의 의의를 명확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전에 대하여 참자녀님이 “왕권을 계승”한 식전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완전한 잘못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형진 님 부처가 쓴 판은 고작 프린스(왕자)가 쓰는 「코로넷」, 프린세스(공주)가 쓰는 「티아라」 정도의 것이었지,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이 쓰는 판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전 도중, 아버지께서『축도』하신 부분이 “왕권 계승”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식전의 사회자의 말을 포함해 전후 일련의 내용을 음미함으로써 명백하게 됩니다. 「축도」 전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이하 식전 영상을 덕테이션)

【사회자의 말】

하나님의 실체로 서서, 만왕의 왕 대관식을 하시기 위해(참부모님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참자녀를 대표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형진 세계회장 부처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0 명의 손주님이 3 대권이 하나 된 입장에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인류역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이 때에 있어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대관식을 위해 입장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님) 양위분이 하늘아버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예를 표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환성과 박수로 환영합니다.

[참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예를 드림] 양위분이 하늘아버님께 진심어린 예를 표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님께서 왕좌에 앉으신 후 형진 님 양위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림] 문형진 세계회장 부처가 하늘아버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평화신경』을 하사]

평화의 왕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전인류를 대표한 문형진 세계회장 부처에게 『평화신경』을 하사하십니다. 이어서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참부모님의 축도】

「천주천지부모님안식권안착즉위식에서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합니다. 아주」

【사회자의 말】

다음은 어보(御寶)와 지휘봉을(참부모님께) 봉정하는 시간입니다.

[참부모님께 지휘봉을 봉정] 우리들을 대표하여 천총관 문형진 님 가정의 장남 문신철 님이 지휘봉을 참부모님께 봉정하고 계십니다. (딕테이션 끝)

일련의 식전에서 알 수 있듯이 참부모님께서 전인류에게 『평화신경』을 하사하실 때, 그 전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형진 님 양위분이 『평화신경』을 받고, 「축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류에 대하여 참부모님께서 『평화신경』을 전수하실 때 하신 「축도」이지, 결코 형진 님 부처가 「왕권」을 승계하여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축도에서도 「축복을 전수합니다」고 하는 것이었지, 결코 「왕권을 전수합니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천일국」 명칭을 정식으로 「천주평화통일국」인데, 이것은 영계와 지상계를 합해 「천주」의 평화통일국이며, 그 중심은 영원히 “만왕의 왕” 이신 하나님과 참부모님입니다.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서 영계에 가신 후에도 천일국의 중심은 영원히 하나님과 참부모님이시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형진 님도 「참부모님은 영원히 한 분입니다. 자녀는 자녀지 참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대관식」이 거행되는 동년 11월 14일, 형진 님은 참아버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해요」라고 명하시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형진)가 참부모님을 부정하거나, 참부모님을 따르지 않으면 통일교회 식구들은 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참부모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참아버님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어머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머님을 부정하고 따라가지 않는 형진 님께 「통일교회 식구들은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뜻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대관식」이 거행된 해에 참아버님께서 형진 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라고 명하신 사실을 생각하면 형진 님이 현재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아버님은 예견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② 「새로운 왕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언설의 잘못

앞 페이지에서 논한 대로 문형진 님은 참부모님으로부터 「왕권」을 승계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진 님은 「새로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츠퍼트교회 측 사람은 「형진 님은 왕권을 상속받았으니 그 새로운 왕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간다」고 하며 교회 식구들을 위협하고,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영원한 중심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입니다. 그 중심은 만인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시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왕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위협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며, 전인류를 생각하면서 “만인구제”를 지향하시는 참부모님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츠퍼리교회 측 사람으로 「형진 님 부처에게 왕권을 국진 님이 전수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같은 자녀인 국진 님이 형진 님에 대하여 왕권을 전수한다는 것이 원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원리강론』에 써어 있는 것처럼 복귀섭리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은 어디까지나 아담을 선악으로 분립한 입장이며 아벨은 “아담의 대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리강론』은 「그들(가인과 아벨)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조건』을 세워 사탄을 분립하였더라면, 그 부모 된 아담은 사탄을 분립한 그 입장에서 먼저 『실체기대』 위에 서게 되어 ……」(271 쪽)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귀섭리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은 탕감복귀를 위해 아담 대신 서 있는 입장입니다. 아담 대신 선 아벨을 중심으로 가인이 굴복하여 일체화해야만 탕감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대신 서지도 않은 아벨과 가인이 아무리 하나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섭리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인간시조의 입장이신 「참부모」가 선 시대권에 있어서 참부모님은 복귀섭리를 승리하시고, 창조본연의 세계의 “정점”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참아버님은 참부모가 현현하시는 때가 역사상의 “정점”을 이룰 때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소원이요 ……섭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부모가 나타나는 때는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정점을 이루는 때요, 전무후무한 때인 것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2003 쪽)

이렇게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참부모님께서 나타나는 때야말로 “정점”을 이루는 때요, 영원한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참부모님께서 세운 상황 하에 있어서는 참자녀님에게 있어서 가인, 아벨을 복귀해 가는 입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왕권 전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귀섭리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의 일체화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왕권 전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창자권」복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아벨의 참된 일체화는 참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모자협조」가 필수불가결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일체화하지 못하고 모자협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 계시는 자녀님입니다. 어떻게 「모자협조」가 있다

고 하겠습니까?

참아버님은 2008년 4월 6일의 제 49회 「참부모의 날」(하와이에서의 식전) 말씀에서 자녀님들을 아버지 앞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인과 아벨이 어머니의 말씀에 절대복종해야 합니다.너희 형제끼리 싸워서 갈라지면 안 돼요. 그것이 부모를 죽인 원흉이에요」(「패밀리」 2008년 6월호, 30 쪽)

이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어머니의 말씀에 절대복종」하고 있는 참자녀님은 누구입니까? 가령 자녀님끼리 하나 되어 있다고 해도 참어머니와 하나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왕권」을 상속한다고 하는데, 참부모님은 종횡의 8 단계를 거치면서 먼저 「장자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부모권」을 세우시고, 그 기대 위에 「왕권」을 승리해 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형진 님이 「왕권」의 위치에 서려면 그 전에 「장자권」「부모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들 내용을 어떻게 복귀해 갔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형진 님이나 국진 님이 하시는 것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며, 원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아버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해요」라고 형진 님께 명하신 「내(형진)가 참부모님을 부정하거나, 참부모님을 따르지 않으면 통일교회 식구들은 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20) 「천일국 4 대성물은 “가짜”며, 그 성주를 마시는 것은 “타락행위”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천일국 4년 천력 3월 16일(2016년 4월 22일)의 참부모님 성혼 56주년을 기해 주신 「천일국 4 대성물」전수 및 그에 의거한 성주식에 대해서 생츄어리교회 측 사람은 「천일국 4 대성물은 가짜다」「성주식에 참가하면 『타락한다』 『지옥 간다』」 등의 말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을 위협하고, 곤혹시켜 성주식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동은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한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금번의 「천일국 4 대성물」전수 및 성주식의 의의와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부여하신 「천일국 4 대성물」및 그에 따른 은사(恩赦)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승리권에 근거하여 주신 은사(恩賜)입니다.

금번 은사에 대하여 「『천일국 4 대성물전수 및 성주식』의 의의와 정성조건」에 대한 공문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참어머니는, 참아버님 성화 이후, 참아버님과 완전일체를 이룬 토대 위에 3년간 전 인류를 대신하여 더없는 시묘정성을 들이면서 하늘부모님께 바친 참아버님의 마지막 효의 정성

을 같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위에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기원절 3 주년을 맞이(했다)」(2016 년 6 월 2 일자, 발췌)

2012 년 9 월 3 일 (천력 7 월 17 일) 참아버님 「성화」 이후, 인류의 「참아버지」는 영계에 계시고, 인류의 「참어머니」는 지상계에 계시는 역사상에 없었던 시대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어머니는 「천정궁본향원」에서 3 년간에 걸친 「시묘정성」을 들이시고, 2015 년 8 월 30 일에 성화 3 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한 「시묘정성」의 기대 위에 우리들은 「희망의 4 년」인 천일국 4 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은사 (恩赦)」를 간절하게 표현하면 **3 년간의 「시묘정성」의 기대**로 말미암아 영계의 참아버님과 지상계의 참어머니의 **완전일체가 안착**하고 그 승리권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전무후무한 은사 (恩賜)라는 것입니다.

① 「천일국 성주」의 은사 (恩賜)에 대하여

기원절성주 (천일국 성주)는 참아버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천일국기원절」에 사용할 성주를 만들어 보관하라고 청평에 지시하신 성주입니다. 금번 「천일국 4 대성물」 성주는 그 천일국 성주가 참어머니의 3 년간의 「시묘정성」의 승리기대 위에 새로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즉 금번 성주는 참부모님 (참아버님과 참어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은 「(금번 전수된) 성주를 마시는 것은 "타락행위" 다」라고 비판했는데, 그것은 당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성주는 인간시조의 입장에서 승리하신 참부모님의 승리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일국 성주는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 지상에 계실 때 만들어 주신 것이고, 나아가 참어머니의 「시묘정성」의 기대 위에 새로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설령 참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신 후라고 하더라도 그 승리권은 영원하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계에 간 후에도 빵과 포도주에 의한 「성찬식」으로 영적 구원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참어머니는 「천일국 4 대성물」을 위한 기도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늘부모님께 공훈의 이 한 성물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되어 영원한 본향원에 갈 수 있는 그림자가 없는, 한 점도 사탄권 내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향 땅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참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 주시는 이 성물 ……」

참부모님은 2013 년의 기원절 성주식으로 축복가정과 식구들에게 은사와 입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그림자가 없는, 한 점도 사탄권 내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이 낳아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우리들의 모습은 참부모님께서 보시고,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다시 한 번」은사의 길을 부여해 주신 것이 금번 성주식입니다.

이것은 영계의 참아버님과 지상계의 참어머님께서 혼연일체가 되시어 부여해 주신 은사입니다.

② 「천일국 성염」의 은사에 대하여

「천일국 4 대성물」로 종래의 성물과 다른 하나는 성염에 새로운 의의가 부가된 것입니다. 종래의 「성염」은 만물을 성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천일국 성염은 우리들 축복가정이 「성화」했을 때, 그 「성체(유체)」를 성별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의의가 부가되었습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사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체까지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아 성별된 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체도 사탄과 싸워 분립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그 시체에 40 일간 방부제를 발랐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걸은 모세에 있어서도 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싸웠으며, 또 예수님에 있어서도 그의 시체를 둘러싸고 문제가 일어났었던 것이다」(314 쪽)

야곱은 실체적인 가정적 승리권을 세울 수 있었으므로, 그 시체는 성별되어 가나안 땅의 묘지에 장사되고, 오늘에 있어서도 야곱의 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창세기 50·13).

그러나 모세는 영적 승리권밖에 세우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시체는 행방불명 되었습니다(신명기 34·6). 예수님의 경우도 지상에서 신부(참어머니)를 세우지 못하여, 그 육체가 사탄의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그 성체(유체)는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의 경우는 지상에서 인류의 「참어머니」를 세우시고 승리한 「참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체는 사탄에게 침해받지 않고 **성별된 성체로 「천정궁본향원」에 안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복귀섭리역사상 전에 없었던 대 승리입니다.

게다가 참아버님께서 「기원절」 이전에 성화하셨다고 해서 분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아버님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성화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아버님의 성체도 모세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성체는 「천정궁본향원」에 안착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다 이루었습니다」고 기도하시고 성화하셨는데, 이번 참어머님께서 3년간 「시묘정성」을 들인 기대 위에 그 성체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천정궁본향원」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체가 안착하신 것은 아버님께서 **실체 승리를 이루신 후에 영계에 가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공문에 「하늘부모님께 드린 참아버님의 마지막 효의 정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영계에 있어서 참아버님의 정성과 지상계에 있어서 참어머님의 3년간 「시묘정성」이 완전히 합치되어 성취된 천주(영육계)적인 사건입니다.

참아버님은 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온 인류의 참부모가 받아야 됩니다**. 윗대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것을 지금까지는 금지해 나왔지만, 이제 복귀시대에 있어서 **축복받고 그랬으니, 앞으로 조상들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8 대교재·교본『천성경』1079 쪽)

이처럼 제사는 먼저 「하나님과 참부모」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肢體)가 “사탄의 궁”이 되어 버리는 것으로 그 시체까지 사탄이 침입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의 인류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제사」가 없이 흘러 왔습니다.

그러나 참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시고, 지상계의 참어머님이 계시는 것으로 본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받았어야 했던 「하나님과 참부모」에 대한 「제사」가 금번 참어머님의 3 년간에 걸친 「시묘정성」의 승리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처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역사적 승리권을 상속하는 축복가정은 각자의 성화 후 그 성체(유체)가 자연계로 돌아갈 때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하는 은혜를 입어 금번의 천일국 성념으로 그 성체의 성별이 허락되어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적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천일국 성토」의 은사에 대하여

금번 「천일국 성토」가 분배된 것도 새로운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토」에 대하여 논하면 부모님은 2006 년 6 월 13 일에 「천정궁박물관입궁대관식」을 거행하셨는데, 그 식전을 7 일 남겨둔 6 월 6 일, 천정궁박물관 앞뜰에서 12 명의 대륙대표자들로부터 세계 각지에 있는 성지의 흙과 성수를 봉헌 받아, 천정궁박물관의 성토와 물을 넣어 섞어 재창조된 「성토」를 다시 대륙회장에게 전수하신 경위가 있습니다.

금번의 「천일국 성토」는 3 년간의 「시묘정성」을 들인 승리조건 위에 **참아버님의 성체가 안착한 「천정궁본향원」의 성토를 전 대륙의 축복가정에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이 「천정궁본향원」의 성토분배는 전세계의 축복가정을 참아버님께 연결해 주시려는 참어머님의 특별한 재량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성토」분배는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내용입니다.

토쿠노 에이지 회장은 이들 「천일국 4 대성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최후까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충절을 지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계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영원한 시간, 공간의 세계인 영계에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생활하겠다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 참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어머님은 참부모님 성혼 56주년 기념식(4월 22일)에 귀한 천일국 4대성물(성주, 성염, 성초, 성토)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계의 참아버님과 상담하시고 결단하신 내용입니다**」(제 34회 전일본(全日本) 성화축제 메시지, 「세계가정」 2016년 7월호, 17쪽)

이처럼 참부모님에 의한 「천일국 4대성물」은 참어머님의 3년간 「시묘정성」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참아버님과 지상계의 참어머님께서 상의하셔서 특별히 부여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들 및 그에 동조하는 사람이 말하는 「**천일국 4대성물은 가짜**」 「**그 성주를 마시는 것은 타락행위**」 「**마시면 지옥 간다**」, 또 「**금번 4대성물 전수는 천대의 면죄부 아니면 후미에**」(일본에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밝게 했던 예수 상·마리아 상 등을 새긴 판자) **다**」라고 하는 비판이나 풍문은 「천일국 4대성물」이 가진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모르고, 참어머님 및 가정연합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릇된 추측”으로 함부로 하는 말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들의 존재가 부정받는 것이 두려워하는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육신을 사탄에게 침해받아 그 “성체”가 행방불명이 된 예수님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내용이며,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승리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계와 지상계의 양 세계에 걸친 인류의 「참부모님」에 의해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측도 축복가정이 이 역사적 은사를 받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역사적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자적으로 “악담”을 하며 현혹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들이 말하는 「타락한다」 「지옥 간다」고 하며 곤혹시키는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영계의 참아버님과 지상계의 참어머님께서 일체가 되시어 주신 「천일국 4대성물」 전수와 성주식에 의한 역사적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21) 참어머님도 「메시아」 다—제 2탄

문형진님은 「**어머님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비판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책자 No.1의 14~16쪽에서 이미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No.1의 내용을 숙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메시아는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야 한다**」(247쪽)라고 하며, 참아버님은 「**메시아는 참부모입니다**」(8대교제·교본 『천성경』 19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만을 메시아라고 생각해 왔는데, 통일원리에서는 메시아는 「참아버지」와 「참어머니」, 양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종래의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메시아는 개인 메시아로, 먼저 남자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가정 메시아 이상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본연의 해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을 때 「참어머니」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적 구원」이라는 개인구원 차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아버님은 예수님이 세우지 못한 「참어머니」를 세워 혈통전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님을 통한 축복결혼으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평화신경』 22 쪽).

『원리강론』에 「원죄는 인간이 그 참부모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하여 중생되지 않으면 벗을 수 없다」(241 쪽),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주시기 위하여는 **참아버지와 함께 참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234 쪽)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려면 거기에 「참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어머니」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의 참감람나무의 표본을 보내는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나 참감람나무인 **메시아가 한 분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혼자 오면 참감람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참감람나무와 메시아의 상대되는 참감람나무를 중심삼고 하나 되어야만 참올리브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영원히 유일한 참부모』 68~69 쪽)

참아버님은 「메시아가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두 분이 계셔야만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은 아버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은 「참아버지」를 중히 여기는 것같이 하는데, 「참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참아버지」의 승리권까지도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2) 아버님과 더불어 어머니도 「하나님의 입장」 이시다

① 「어머님은 이미 타락했다」 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은 「**어머님은 이미 타락했으므로 어머님을 따라가는 식구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다**」라든가 「**어머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나 메시아라고 부르며 순종스런 대상의 위치를 떠났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당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참아버님은 참어머니가 환갑을 맞이한 2003년 양력 2월 6일, 두번째 성혼식과 가정왕 즉위식을 하셨는데, 그들 식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가정왕즉위식』을 못 했습니다. ……『가정왕즉위식』을 했으니 하나님이 본래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때를 맞았다 이거예요. 혼인신고를 문 총재 중심삼고 했어요. 이제 영계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영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이제 가게 되면 영계의 부모의 입장에서 **문총재 부부의 얼굴이 나타나 가지고 휘황찬란한 빛으로서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된다는 거예요」(「패밀리」 2003년 5월호, 27 쪽)

참아버님은 평화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한 터전 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외적이요 형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내적이요 종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생애를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평화신경』 40~42 쪽)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완성, 즉 인건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동, 144 쪽)

이처럼 완전한 아담과 해와가 영계에 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 성혼식 이후, 참아버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영계에)가 보면 ……문충재 부부의 얼굴이 나타나 가지고 휘황찬란한 빛으로서 보이기 때문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님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참어머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혼식 이후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님의 입장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각각 완전한 아담, 완전한 해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를 이룸으로써 그 절대적인 사랑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을 받게 되면, 이 절대적인 부부의 사랑의 힘을 끊을 자나 그것을 끊을 힘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타락될 수 없다」(92 쪽)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한 아담과 완전한 해와는 「절대로 타락될 수 없다」고 하는 『원리강론』에서 논하고 있는 원리와 맞춰보면 참아버님과 참어머님 두 분은 이제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타락했다」고 하는 생츠퍼리교회 측의 주장은 원리와 다른 “비원리적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참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은 성신입니다. 성신을 배반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천일국경전『참부모경』 47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을 「성신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2003년 두번째 성혼식 이후, 전술한 대로 어머님도 “하나님의 입장”에 계신다는 것을 명언하셨습니다.

사실 두번째 성혼식 후, 참아버님은 명절 때 참어머님은 아버님께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게다가 2006년 6월 13일에 있었던 「천지인참부모님천정궁입궁·대관식」 이후는 어머님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님은 어머님의 「위상」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리강론』도 성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이 여성신이시기 때문에,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는 것이다」
(234 쪽)

「예수님이 후 아담으로 오셔서, 후 해와의 신성 이신 성신과 더불어 속죄의 역사를 하시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330 쪽)

「인류의 부성신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성신 되신 성신을 복귀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전 인류를 다시 품어 중생시킴으로써 완전복귀한다」(동)

「모세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낮(양)의 구름기둥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노정으로 인도할 예수님을 표시하였고, 밤(음)의 불기둥은 여성신으로서 그들을 인도할 성신을 상징했던 것이다」(335 쪽)



사진2

이처럼 『원리강론』은 성신을 「여성신」「모성신」 등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어머님은 성신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어머님도 “하나님의 입장”에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②월슨 교수에 의한 중요한 지적

2016년 2월, 한국에서 거행된 「천일국지도자회의」에서 앤드류 월슨 U T S (통일신학대학원) 교수는 2006년 6월 13일의 「천지인참부모님천정궁입궁·대관식」 사진【사진2】을 가리키며, 생츠했어리교회 측의 잘못에 대해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월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가운데 천일국의 의미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6월 13일에 거행된 『천지인참부모님천정궁입궁·대관식』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사진2】.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을 위한 두 왕좌가 있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머니 되신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두 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니의 머리 위에 두 왕관이 있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머니 되신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두 왕관이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머니 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종적인 하늘부모님(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으로 계시는 횡적인 참부모님 사이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장의 사진 가운데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천일국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생츠했어리교회에서는 왕좌의 하나를 치워 버렸습니다」

이 사진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월슨 교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완전일체되어 계시며, 참아버님만 아니라 참어머님도 “하나님의 입장”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 「2012년 8월 3일의 마지막 혼독회에서 아버님은 『모든 것을 망친 엄마와 김효울은 책임져』라고 말씀하셨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

생츠퍼리교회 측 사람들은 2012년 8월 3일의 마지막 혼독회에서 「**참아버님은 『모든 것을 망친 엄마와 김효울은 책임져』라고 하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린 8월 3일 혼독회 영상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해도 성화하시기 21일 전인 양력 8월 13일, 참아버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신 것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시점에서 「**어머님은 아버님과 일체화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면 「**모든 것을 망친 엄마**」라고 한다면 참아버님은 「**다 이루었다**」고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참부모님은 “완전일체”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츠퍼리교회 측의 블로그에서는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영어판 천일국 경전 『천성경』을 인용하여, I have accomplished everything for this. 라고 써여 있으므로 「**왜 아버님은 『나는 (I)』이라고 하셨는가? 여기는 『우리는』 혹은 『참부모』는 이라는 말이 어머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굳이 왜 『나는』만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아버님의 성화 직전까지 어머님은 아버님과 일체화 되지 않았다**는 증좌이기도 하다」(「생츠퍼리 NEWS」2016년 4월 24일) 등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의 마지막 기도는 한국어에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영어라는 성격상, 원래 없었던 「I」라는 주어를 번역을 위해 삽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번역한 문장의 어느 한 부분만을 따서 비판에 이용한 자의적인 인용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24) 「아벨여성UN창설대회」에 관한 어머님 비판에 대한 응답——질책의 말씀은 어머님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참어머님을 비판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참아버님의 마지막 창설대회 강연 『아벨여성UN창설대회』에서 참아버님은 강연문을 읽으시다가 일시 정지하시고 대관중 앞에 참어머님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라고 하셨다. 참아버님의 그 강한 어조로 봐서 두 분이 일체 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생츠퍼리교회 측은 상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약 1분간 영상을 각 방면으로 보내 “참



사진 3



사진 4

어머님 비판”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의 “정지화면”을 메일에 첨부하여 각 방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사진 3, 4참조】.

참아버님의 강연은 약 1 시간 20 분으로 장시간에 걸친 것인데, 생츠했어리교회 측은 그 중 약 1 분간만을 잘라 비판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상의 모두에 「문선명 선생의 마지막 스퍼치가 된 아벨여성UN 창설대회기조연설에서의 놀라운 발언」이라고 하는 자막을 넣어서 마치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 오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의해 두어야 할 점은 이때 참아버님은 강연문을 읽으면서 수시로 애드리브로 여러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강연하셨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만 애드리브를 넣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생츠했어리교회 측은 「강연문을 읽는 것을 일시 정지하시고」라고 하며, 마치 이 부분만이 특별한 것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데, 실체는 아버님은 강연 전체에서 애드리브로 말씀을 계속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츠했어리교회 측의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츠했어리교회 측의 비판은 참아버님은 강연문 전체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 분간의 영상을 상세히 검토하면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는 얼토당토않은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확산하고 있는 약 1 분간의 영상에 삽입한 텔롭(자막)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 굵은 글자 부분은 강연문. 보통체 문자는 애드리브로 말씀하신 부분)

「우리 부부가 20 년 전, 본 연합 창설 때 밝힌 메시지의 정신에 따라 승리한 세계적인 여성 대표인 참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내가 길렀어.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충재의 아내 위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응. 세계적인 여성대표인 참어머님을 모시고, 참어머님 상, 참아내의 상을 확립하고, 참사랑의 운동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결실시켜야 하고」

이 부분을 충실히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20 년 전 본 연합 창설 때 천명한 메시지의 정신을 따라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 없습니다. 문충재의 아내의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세계 여성대표 참어머님을 모시고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을 정립하여 참사랑운동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결실시켜야 하고」

참아버님은 여기서 청중에 대하여 무엇을 호소하고 계십니까?

먼저 착목해야 할 부분은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님을 모시고」입니다. 참아버

님은 강연문 원문에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니를 모시고」라고 “참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님을 모시고」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참어머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학자 여사라고 의식되는 표현인 그 한 여사를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이신 참어머님을 「모시고」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의 사용에 대한 구분입니다. 참어머님은 그에 이어 애드리브 부분의 맨 처음에 「어머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고유명사” 「어머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님 (한 여사)」을 「내 (아버님)가 길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아버님께서 명백히 승리하신 참어머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참어머님을 길러 오신 것을 자부하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머니 없습니다」라는 말씀은 그때까지와는 달리 “일반명사”로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은 이렇게 다른 것을 무시하고, 모든 말씀을 「어머니」라고 카다카나로 텔로를 넣어서 일본 사람이 볼 때 그야말로 한 여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게 위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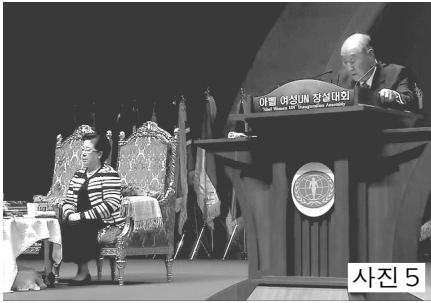
그러나 「어머니 없습니다」라고 하는 문언은 “일반명사”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에 있어서 승리한 어머니가 없었다 (그러나 한 여사가 비로소 승리한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한 여사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중이나 일반 여성을 향해 한 여사처럼 승리한 「어머니 없습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의 「어머니 없습니다」가 한 여사라고 가정하면 그 직전에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님을 모시고」라고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셔야 할 “어머니”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순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를 「모시고」라고 명하시는 의미 불명의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이어서 「문충재의 아내의 자리도 없어요」는 그렇게 승리한 「참어머님」이 처음부터 있을 리가 없다고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독생녀로서 태어난 한 여사에게도 「문충재의 아내」, 「참어머님」로서 승리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있으며, 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으므로 그런 승리한 「문충재의 아내의 자리도 (처음부터) 없습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은 일반 여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을 보면 그때 청중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아버님은 청중을 향해 다시 한 번, 승리하신 「세계 여성대표 참어머님을 모시고」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다음 그 어머님을 모심으로써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을 정립하여 참사랑운동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결실시켜야 하고」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 앞에 참어머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 참아버님의 그 강



한 어조로 볼 때 두 분이 일체화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생츠퍼리교회 측의 비판은 강연문의 흐름과 참아버님의 진의를 무시하고, 그것을 왜곡한 얼토당토않은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은 아버님을 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퍼트리고 있는 약 1 분간의 영상에 없는 전후 부분을 확인하면 참아버님께서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엄한 어조로 질책하고

계실 때 참아버님은 아버님 바로 옆에 계십니다 【사진 5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을 전혀 볼 기색도 없고, 오히려 회장을 둘러보듯 청중들에게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봐도 이 말씀은 어머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강연문 전체를 통해 볼 때, 그 질책의 말씀은 참어머님에 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을 질책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표현이 강연문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연문 첫 부분에 참아버님은 회장의 청중들에게 대해 「제 부인 되는 한학자 총재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아가 세 번에 걸쳐 「한학자 총재와 함께」, 「본인 부부」, 「참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고찰하면 아버님은 승리하신 「참어머니」인 한 여사와 더불어, 승리하신 「참부모」로서 이 강연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맥을 무시한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실을 왜곡한 비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25) 「아벨여성UN창설대회」에서 아버님의 “신관”에 관한 중요한 말씀——“어머니가 없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싸우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렀습니다. 우리들은 참아버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요,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참부모입니다」(8 대교재교본『천성경』1660 쪽)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 『원리강론』에도 「부모되신 하나님」(41 쪽), 「부모되시는 하나님이」(71 쪽), 「하늘 부모로 계신 하나님」(210 쪽)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 무관심했던 것같이 생각됩니다.

참아버님은 「아벨여성UN창설대회」강연에서 이 신관 문제에 대하여 중대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강연문을 읽기 전에 약 30 분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종교가 되었지만, 어머니 없는 종교를 믿어왔다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 시간을 폭발시켜 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있어

서는 안 될 그 비운의 흠집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내 가는 길은 평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되는 하나님) 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어머니 없는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싸우고 빼앗기 싸움하는 이 교단들의 어리석음과 나라의 권위의 상실을 누가 시정해 줄 거야?」

참아버님은 지금까지 종교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만 알고,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운 이 시간을 폭발시켜」라고 하시며 「어머니 없는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싸우고 빼앗기 싸움」해 온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22) 아버님과 더불어 어머님도 「하나님의 입장」 이시다」에서 생츠퍼리교회 측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월슨 교수는 2006년 6월 13일의 「천지인참부모님천정궁입궁·대관식」에서 참아버님께서 세팅하신 왕좌나 왕관의 사진【사진 2】을 가리키며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을 위한 두 왕좌가 있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머니 되신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두 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머리 위에 두 왕관이 있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머니 되신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두 왕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천일국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생츠퍼리교회에서는 왕좌의 하나를 치워 버렸다」고 생츠퍼리교회 측의 중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써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로써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계십니다.

참아버님은 2010년 1월 1일 오전 0시 기도에서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하나님). 땅 위에 상대적 입장에 선 지상 부모님을 일체화시켜 가지고 천정궁을 세워 ……」라고 기도하시며 하늘부모님과 지상의 부모님은 상대적 입장에 있으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서 아버님은 그 전제로서 호소하신 내용과 맞춰 생각하면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생츠퍼리교회 측이 「하늘아버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고집하고, 나아가 「참어머님」의 왕좌를 치워 버린 행위가 얼마나 참아버님의 소원으로부터 일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점만을 보더라도 생츠퍼리교회 측은 아버님과 일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6) 분파의 말씀 개조에 요주의

① 「어머님은 타락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문형진님은 설교에서 2003년 10월 1일 참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은 사탄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교회! 아버님도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타락한 천사장의 혈통에서 왔다.』」고 하시며, 가정연합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인용은 악의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도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까지도 그래요, 선생님까지도.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재창조해야 돼요」(말씀선집 419 - 102)

참아버님은 「어머니도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에요」에 이어 「선생님까지도 그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까지도 그래요」를 생략하고, 참어머님만 그런 것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절대적인 독생자였습니다. 해와도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과 타락하기 전 독생자와 어떤 것이 귀찮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담입니다」). 왜 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타락한 후손인 여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천 대 더럽힌 혈통을 조건적 기반에 심어 놓고, 그것을 조건적인 입장에서 독생자로 태어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본향』 320~321 쪽)

참아버님은 마태복음 1 장의 계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타락한 후손인 여자로부터 온 것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까지도 그래요」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마태복음의 서두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에 4 음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만민의 구주는 죄악의 혈통을 통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악의 혈통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538 쪽)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세주는 「죄악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납니다.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진님의 말씀 인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말씀 인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의 문제입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이나 꼭 그룹 측에서는 일본인 멤버가 참어머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그들의 일본어 번역 말씀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아세요? 막해 보라구요. 타락한 핏줄을 갖고 태어났어요」(461 - 26, 2004 년 7 월 19 일)

그들은 「타락한 핏줄을 갖고」라고 번역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이며, 「갖고」로 번역한 「받고」는 「이어받아」라고 번역해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습니다」로 됩니다.

이것은 전술한 「어머니도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까지도 그래요」라고 하는 말씀의 「이어받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츠토크교회나 콰 그룹 측에서는 「타락한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라고 바꿔 번역함으로써 우리들을 오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참아버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인간 자체의 주인으로 오는 재림주도 사탄의 혈통을 타고 왔다고요」(말씀선집 444 - 197, 2004년 4월 4일)

「선생님도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부모의 혈육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참부모가 나타날 수 있느냐?」(말씀선집 481 - 48, 2005년 1월 1일)

이들 말씀은 거의 같은 연대에 하신 말씀이며,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결국 「받고」라고 하는 것은 참아버님도 참어머니도 예수님도 같은 “타락 혈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② 「부자협조시대」의 말씀 개조

생츠토크교회 측의 사람은 「부자협조시대」라는 말씀을 악용하여, 「섭리의 흐름으로 봐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는 『여성시대』이며, 『참어머니』를 중심한 섭리입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부자협조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2000년 1월 5일 말씀에서 『국가시대를 넘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연결될 때, 어머니가 아니라구요. 여기서 떠나 되면 어머니는 장자에게 맡기므로 부자협조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협조시대가 되면 여기서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말씀선집 314 - 230)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를 중심한 시대는 끝나고 지금은 형제님을 중심한 시대가 왔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의 번역에 대해서는 후술)

그러나 1999년의 「9·9절」 말씀 및 2000년 11월 11일 하와이에서 선포된 「부자협조시대」의 말씀은 참아버님께서 어머니나라 일본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선포하신 것으로 참어머니에 대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1999년, 원래는 일본에서 「축복결혼식」을 거행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부자협조시대」를 선포하시고, 일본구원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앞서게 하려고 그래요. 장자가 해와보다 더 나빠요. ……해와가 타락한 후에 열매 맺은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자 되는 미국을 통해서 해와가 따라 들어가면 한국으로 오기 쉽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책임 못 하게 되면 미국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미 모자협조시대를 부정해 버리고 부자협조시대를 선포했어요. 왜? 일본을 내쫓더라도 부자협조시대에 아들을 따라 가지고, 어머니가 없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되면 어머니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이든 알지? 「예.」 어디 가서 부자협조시대를 발표했나? 어느 섬에서? 「하와이에 있는 가와이 섬입니다. ……」 일본 말로 가와이 섬이에요, 가와이 섬. 그 섬에 가 가지고 부자협조시대를 선포했어요. ……(일본은) 장자의 세계를 탕두질 해 버리려

고 그랬지요? 그걸 고쳐 가지고 그 이상 것을 만들어서 남자를 앞에 세우지 않고는 복귀될 어머니의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자협조시대를 지나 가지고 부자협조시대를 이미 하와이의 가와이 땅을 중심삼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말씀선집 451 - 226~227, 2004년 5월 29일)

이처럼 참아버님은「모자협조시대」,「부자협조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명확히 어머니나라로서의 일본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하에「부자협조시대」에 관한 분과 측의 “문제 되는” 번역을 지적합니다. 어떤 인물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역사에 있어서 모자가 협조해 왔는데, 그 모자협조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탕감의 역사는 모자, 어머니와 아들딸이 희생되어 복귀했는데, 9·9절을 선포하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운세권에 들어와 통일되는 날에는 부자협조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없어도 된다고요. 어머니는 얼마든지 찾아세울 수 있습니다」(말씀선집 303 - 264)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천사장 국가이고 한국은 아담 국가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까지의 복귀역사에 있어서는 모자가 협조해 나왔는데, 그 모자 협조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탕감의 역사는 모자, 어머니와 아들딸이 희생되어 가지고 복귀했지만, 9·9절을 선포해 가지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운세로 들어가서 통일되는 날에는 부자협조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없어도 됩니다. 어머니는 얼마든지 찾아 세울 수 있습니다.일본이 지금까지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한국에 접붙여 나왔어요.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도 하나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되어 야만 김정일이 소화될 수 있어요」

이 블로그는 어머니나라 일본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고 계시는「어머니」를 그대로「어머니」라고 번역함으로써 마치 참어머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어머니」는 해와국가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아버님은 일본 대신 캐나다 필리핀 등을 해와국가 후보로 생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블로그는 전술한 2004년 5월 29일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모자협조시대를 부정해 버리고 부자협조시대를 선포했어요. 왜? 〈중략〉 부자협조시대에 아들을 따라 가지고, 어머니가 없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면 어머니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육이는 알지?」(말씀선집 451 - 227)

그러나 앞에서 나타낸 2004년 5월 29일의 말씀에는 중략하고 있는 부분의 전후를 맞춰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협조시대를 선포했어요. 왜? 일본을 내팔리더라도 부자협조시대에 아들을 따라 가지고, 어머니가 없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되면 어머니는 어디든지, 언제

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이 블로그는 「일본을 내갈리더라도」를 생략하여 일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은폐한 다음 「어머니가 없더라도」라고 함으로써 「참어머님이 없더라도」라고 하는 의미로 읽게끔 말씀을 개조했습니다.

다음의 번역도 악질입니다.

「문 총재를 붙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지옥을 철폐해서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자협조시대와 부자협조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자협조시대, 생명의 씨를 품고 키우려는 여자는 남편에 대하여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말씀선집 340 - 42)

『』부분은 참아버님께서 하와이에서 일본을 구원하기 위해 「부자협조시대」를 선포하신 말씀의 훈독 부분입니다. 훈독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훈독 부분을 짝맞추어 의도적으로 말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악의적인 번역을 합니다.

「국가시대를 넘어서 아버지를 중심삼고 연결될 때는 어머니가 아니라구요. 여기서 하나 되면 어머니는 장자에게 맡기므로 부자협조시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자협조시대가 되면 여기서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말씀선집 314 - 230)

이 말씀은 참아버님께서 각 가정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어머니」는 각 가정의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각 가정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즉 아버님은 가정적 사위 기대복귀에 대한 이야기로 가인·아벨을 어머니가 모자협조로 수습했다면 아버지가 바른 위치에 서므로 모자협조시대가 끝나고 부자협조시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머니」로 함으로써 참어머님을 말하는 것같이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개조 행위를 하겠습니까? 어머니를 폄하함으로써 통일가의 일체화 되지 않게 하려는 “분열”을 획책하려는 것 같습니다.

참아버님은 「부자협조시대」가 되었으므로 참어머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리강론』에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주시기 위하여는 참아버지와 함께 참어머님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234 쪽)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최후의 한 사람이 구원될 때까지 참어머님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가정연합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아버님은 1997년 4월 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시대 개막선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이래 여자들이 지금까지 장자로서 만아들로부터 차자로부터 형제가 하나 되어 가지고 어머니를 하늘같이 모실 수 있는 전통을 갖지 못했어요. 본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연의 어머니가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를 해서 어머니 복귀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볼 때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 이름 아래 절대복종해

야 된다 이거예요.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못 된다는 것이 원칙적 총관입니다. 총관이랴구요」(『주요의식과 선포식Ⅲ』 120 쪽)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려면 자녀(가인·아벨)은 어머니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칙적 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의 생명선입니다.

(27) 인간시조인 「참부모」에게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참부모」는 유일무이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인물은 「참아버님께서 후계자로 형진님을 임명한 날 이후, 참아버님께서 후계자를 한 어머니로 변경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자협조 시대인 지금, 부자관계가 아닌 한(韓) 어머니가 후계자가 된 것은 원리적이지 않다」 등이라고 하며 참어머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참아버님의 말씀에 반하는 비원리적인 주장입니다.

「참부모」란 인류의 “인간시조”의 입장에 계신 유일한 분입니다. 따라서 「참부모」에게 “후계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비원리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아버님은 교회(70세)를 맞이한 1990년, 모스크바대회(세계언론인회의)의 승리 기대 위에, 동년 4월 30일부터 5월 22일에 걸쳐 한국 12개 도시를 순회하고 「승리귀국보고대회」를 거행하시고, 「참부모선포」, 즉 「메시아선포」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맞이한 아버님은 이 대회 약 1개월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없고 어머니만 있더라도 뜻에 아무 지장없다 그 말이라구요.지금까지는 여자가 하늘땅을 대표한 섭리의 대표자로 설 수 없었는데,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적 이상을 중심삼고 어머니 중심삼은 여성 전체 해방권이 지상 위에 선포된 것이 오늘 아침 식전이였다 그거예요.(참부모 성훈) 30세 되어서 여성 해방을 선포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레버런 문이 교회를 지나고 70이 넘었으니까 후계자가 안 나와?’ 하는 그런 말은 집어 치워요.선생님이 제 1교주, 그다음에 어머니는 제 2교주다 이거예요」(말씀선집 201 - 127~128, 1990년 3월 27일)

참아버님이 「후계자그런 말은 집어 치워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시조”이신 「참부모」에게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부모님의 “대신자”이며, 신앙의 “상속자”입니다. 설령 참자녀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녀」지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아버님은 「참부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오직 하나예요. 이때 단 한 번뿐이에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육신을 쓰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때뿐이라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딱 한 번입니다」(말씀선집 246 - 84)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참다운 인류의 조상,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해와는 승리적인 실제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8 대교재·교본『천성경』2177 쪽)

「타락이 없었다면 ……아담과 해와는 참사랑에 의한 이상적인 참부부가 되고 나아가 참부모가 되어 그 후손과 전인류의 참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동, 2369 쪽)

「참부모」란 본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근본조상으로, 인류라는 「혈족」의 출발점, 즉 승리하신 “인간시조”에 위치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그 「참부모」는 실체를 가진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참아버님의 「평화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완전일체를 이룬 사랑의 실체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인류의 참사랑의 부모가 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생애를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평화신경』41~42 쪽)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면 그들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유일무이하시고, “인간시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 그 「참부모」에 대하여 참어머님과 자녀님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후계자인가」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실로 어리석은 논의입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현현하신 오늘, 참아버님과 참어머님 대신 「참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달리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자녀님이라고 하더라도 인류의 「참부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후계자 ……그런 말은 집어 치워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②천일국의 중심은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다

전술한 것처럼 생츄어리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인물은 어리석게도 「부자협조시대인 지금, 부자관계가 아닌 한 어머니가 후계자가 되어 있는 것은 원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며 참어머님을 비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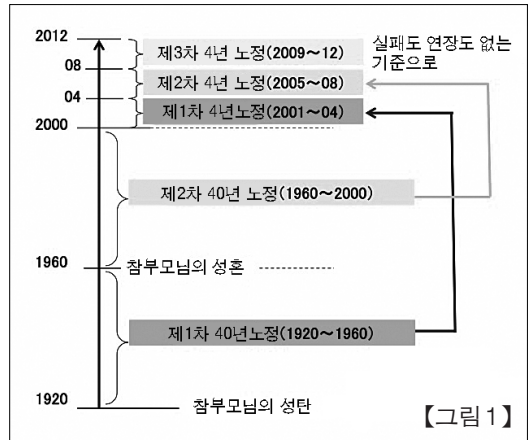
이러한 분파의 「부자협조시대」에 대한 말씀 개조와 악용에 대해서는 (26)의 「분파의 말씀 개조에 요주의」의 ② 「부자협조시대의 말씀 개조」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논하면 「부자협조시대」의 선포란 참아버님께서 어머니나라, 일본의 구원조치를 위해 선포하신 것이지, 참어머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버님은 「부자협조시대」가 되었으므로 참어머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시대의 개막선포에서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 이름 아래 절대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연결돼요」(『주요의식과 선포식Ⅲ』 120 쪽)라고 하시며, 자녀인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에게 절대복종해야만 아버지와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를 통해야만 「아버지」에게 연결한다는 원칙은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2·3)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 참어머니이신 성령을 통해야만 영적 아버지인 예수님께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원래는 2000년까지 모든 섭리를 마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80 세에 가나안을 복귀하여 천하통일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벨·가인이 남아 있었으므로 ……아벨·가인의 철폐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 년(120 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선생님은 첫 40 년, 80 세까지의 40 년, 지금의 40 년을 각각 4 년으로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 92 세를 중심한 2012 년까지로 모든 것을 마치는 것입니다」(『후천시대와 참사랑의 절대가치』 255 쪽)



【그림 1】과 같이 전후(戰後) 기독교의 불신으로 잃어버린 제 1 차 40 년노정 및 참부모를 충분히 모시지 못했던 통일교회의 제 2 차 40 년노정을 각각 4 년노정으로 탕감하고, 실패도 연장도 없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간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 제 3 차 4 년노정이 있었습니다.

2001 년부터 2012 년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서 각각 4 년노정의 출발점인 2001 년 1 월 13 일의 「하나님왕권즉위식」【사진 6】, 2005 년 2 월 14 일의 「천주통일평화의 왕대관식」【사진 7】, 2009 년 1 월 31 일의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대관식」【사진 8】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섭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늘부모님(하나님)과 참부모님이시지 자녀님은 아닙니다.

이 3 차에 걸친 4 년노정, 모두 12 년간의 출발점에 위치한 2001 년 1 월 13 일의 「하나님왕권즉위식」 사진【사진 6】을 보면 참부모님께서 앉으신 의자 배후에는 하나님의 흰 왕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6
2001년 1월 13일 하나님왕권즉위식



사진 7
2005년 2월 14일 천주통일평화의 왕
대관식



사진 8
2009년 1월 31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사진 9
2006년 6월 13일 천지인참부모님
천정궁입궁·대관식

이미 (22)의 「아버님과 더불어 어머니도 『하나님의 입장』 이시다」에서 논한 것처럼 2006년 6월 13일의 「천지인 참부모님천정궁입궁·대관식」 사진【사진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천일국」의 기반 및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이시지, 결코 참자녀님은 아닙니다. 「제2대왕」 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원리강론』에 「예수님 이후

에는 예수님과 성신이 직접 성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 섭리시대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을 하늘 대신 전체적인 섭리의 중심인물로 세우지는 않으셨다」(435 쪽)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참부모」가 나타났더라면 그 이전 시대의 섭리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의 인간을 하나님 대신하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실체로 현현하신 「참부모」**가 직접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일국의 영원한 중심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며, 자녀는 그 참부모님의 「대신자」, 신앙의 「상속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자녀님이라고 해도 「참부모」를 대신한 후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체적 천일국 실현,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비전 2020」의 기간입니다. 우리들은 하늘부모님 및 참부모님(영계의 참아버님, 지상의 참어머니)을 중심삼고 가야 합니다.

참아버님은 2008년 4월 6일, 하와이에서 「참어머니 및 아벨·가인 일체화의 특별식」【사진 10】을 거행하시고, 참어머니를 한 가운데로 하여 현진 님, 국진 님을 세우시고 서로 손을 잡으라고 지시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인 아벨이 어머니 말을 절대복종해야 돼.너희 형제끼리 싸워 갈릴 수 없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원흉이야.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미워. 소리도 듣기 싫고, 가는 것을 보면 뒤를 따라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너희들이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야」(「패밀리」 2008년 6월호, 30 쪽)



사진 10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참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가 「참어머니」에게 절대복종하여 일체화함으로써 「참어머니」와 연결되고, 그리하여 「참아버지」에게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해 가는 최대의 포인트입니다.

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원흉**」으로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8) 2012년 1월 19일의 「선포식」의 진상—자녀님과 축복 가정의 부족함을 중재하시는 어머니



이미 소책자 No.1의 2, (4)에서 다룬 문제(19~21쪽)인데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은 「2012년 1월 19일 혼동회에서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을 부정하시어 『전부, 어머니와 하나 되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어머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는 사람은 도깨비야, 이놈들』, 『나는 지금 혼자야, 아들도 딸도 없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님과 「최종일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어머니를 비판합니다. 이 비판은 “메모정보”에 기인한 부정확한 것으로 악의가 있는 것인데, 이 혼동회에서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 하셨습니다【사진 11】.



「중국과 (구)소련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인데, 너희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런 조건을 함으로써 영계가 대신, 이러한 식을 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앞에 서게 되면 전부 따라서 어머니가 하는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 아버님에 대한 걱정, 지금 어머니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천지에 이날을 기해 완전히 통일, 일체권을 참부모와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전세계가 하나 되어 성립한 조건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 박수. 참부모의 이름으로 성혼, 완결완성, 해방권이 승리의 조건을 세워 자유로 하늘로 날아가요! 아주!」

이 선포식은 우선 참어머님을 앞에 서게 하시고, 뒤에 석준호 씨, 윤정로 씨, 황선조 씨, 김효율 씨 4 사람을 세우고【사진 12】, 그 뒤에 참아버님 옆에 어머니가 서고, 4 사람의 방향을 바꾸어 거행되었습니다【사진 11】. 이 선포는 당시 국진 님, 형진 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체제가 아버님의 소원과 일치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을 아버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 어머니를 엄하게 질책하고 수습한 것입니다.

이 선포는 참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앞에 서게 되면 전부 따르고 어머니가 하는대로 따라가면 간단한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참어머님을 앞에 세우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부정하시고」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자녀인 가인·아벨은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일체가 되어 먼저 「참어머니」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참아버지」에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리 원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항목 (26) (27)에서 논한 것처럼 세계평화통일가정



연합시대는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 이름 아래 절대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하게 되면 아버지와 연결돼요**」(『주요의식과 선포식Ⅲ』 151 쪽), 「너희들 가인과 아벨이 어머니의 말에 절대복종 해야 돼요」

(「패밀리」 2008 년 6 월호, 30 쪽) 라고

고 하시며, 자녀는 「**참어머니**」를 통해서 「**참아버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축복가정에게도 적용되는데, 참아버님은 「**어머니 중심삼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선생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영계도 그렇고 땅도 그렇습니다. 선생님하고 하나님하고 말이에요**」(말씀선집 265 - 310~311)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은 영계도 그렇고, 지상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진 님의 경우, 「참어머니」를 통해 「참아버지」와 연결되는 원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참아버님은 그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전 국진 님, 형진 님은 자기들의 활동을 참어머님께 보고하고, 「참어머니」를 통해 「참아버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활동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츠퍼리 교회 문제는 이전과는 달리 국진 님과 형진 님이 「참어머니」와 일체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자녀님을 통해 일본에 전달된 정보로 2012 년 1 월 23 일 (제 45 회 「참하나님의 날」) 에 세 번째 성혼식 (하나님의 결혼식) 이 거행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KMS 중화신문」 (통권 446 호) 의 「오늘의 섭리해설」 은 「당초, 천기 3 년 천력 1 월 1 일 오전 10 시부터 『천지인참부모님성혼식 (하나님의 결혼식)』 을 예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연기되어 2013 년 1 월 13 일 『기원절』 에 맞춰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력 1 월 1 일 오전 10 시 식전은 …… 『천지인참부모님 93 성탄 금혼 및 회년·교회』 라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식」 에서 「천지인참부모님 93 성탄 금혼 및 회년·교회」 로 명칭이 변경된 식전은 참부모님께서 결혼식에 입은 흰 양복을 입으시고, 자녀님이 서포트하시는 가운데, 천력 1 월 1 일 오전 10 시부터 거행되었습니다. 【사진 13, 14】

이른바 「곽 그룹」 측이 최근 일본에서 집회를 하며 배포하고 있는 서적에는 「문형진 등 동양교는 2012 년 1 월 22 일 ' 참부모 탄신일 ' 에 한학자와 하나님의 결혼식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해 왔으나 창교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1 월 19 일과 21 일 창교자가 한학자를 꾸짖은 이유는 창교자의 허락 없이 진행해 온 한학자와 하나님 결혼식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200 쪽)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소문이기 때문에 부정확한데, 바른 것은 1 월 23 일에 거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자녀님을 통해 전해진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 의한 「**세 번째의 성혼식**」 이며, 그것은 「1 월 22 일 『참부모 탄신일』」 도 아닌 「**한학자와 하나님의 결혼식**」 도 아닙니다. 이 소문은 더욱 바뀌어 최근에는 「1 월 18 일, 김호남 씨가 주

례로 서서 하나님과 어머니의 결혼식을 결행했다」라든가, 「어머니는 악신과 결혼했다」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되어 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아버님의 소원은 「세 번째의 결혼식」을 2013년 천력 1월 13일의 기원절에 거행하는 것이지 2012년 1월 13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약 1년 앞당겨 거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월 21일 혼독회에서도 참아버님은 같은 말씀의 흐름 가운데 당시의 한국회장이었던 석준호 씨를 앞에 세우고【사진 15】,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질책하셨습니다.

「국진, 형진이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내가 모르게 하면 걸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해도 전부 알고 있어요. 내 뒤에는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분입니다」

「참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인·아벨이 하나 되는 원칙으로 봤을 때, 당시 국진 님과 형진 님(아벨)의 활동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 자녀님과 축복가정(가인)의 문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인·아벨이 「참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몇 가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22일(「참하나님의 날」전날)의 「천복등 점등식」【사진 16】, 1월 24일의 「통일교 천복 퍼레이드」【사진 17】, 「천복식」【사진 18】에 대하여 위화감을 표명하는 축복가정이 있었습니다. 「천복식」에서는 참아버님의 질책이 정점에 달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지인참부모가 중심이며, 이번의 모든 행사는 참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면 뒤죽박죽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진 15



사진 16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선생님께는 14 명의 아들딸이 있는데, 전부 닮았어요. 손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성진이 대표고, 국진이 대표고, 그 다음에 형진이 대표고, 그 아들딸도 대표입니다」

퍼레이드 후의 「천복식」에서는 참아버님은 「천복초 전수」「성토식」「성염전수식」에 대한 식 집행 및 식전의 모든 것을 재구성하시고, 자녀님을 질책하시며 지도하셨습니다. 「곽 그룹」 측이 배포하는 전술의 서적에서는 「2012.1.24. 천복축제 천복성초, 성염전수식에서 창교자가 행사에 대해 역정을 내며 성염을 한학자에게 뿌리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한학자는 불쾌한 안색을 보이기도 했다」(200 쪽)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도 부정확한 것이며, 참아버님께서 성염을 참어머님께서 뿌린 것이 아니고 형진 님 부처에게 뿌린 것이 진상입니다. 【사진 19】

생츠퍼리교회 측 사람은 2012년 1월 19일 혼동회에서 참아버님의 질책 및 4명을 세워 거행한 「선포식」으로부터 시작한 일련의 흐름이 「어머님 반역 시작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의 전말을 알고 보면 아버님의 질책은 참어머님에 대해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님 및 축복가정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만이 아니라 통일교회로부터 가정연합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님의 의향으로 「통일교」로 회귀해 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2000년 10월 27일, 가정왕권시대선포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천지부모를 모시는, 왕을 모시는 첫 출발의 가정인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중심삼고 교회를 해체했습니다」(『주요의식과 선포식Ⅳ』 437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체한 통일교회로 회귀해 버린 것입니다. 또 성령치유예배라는 제목으로 사위기대를 그리는 동작 및 파동을 보내는 노래 등으로 인해 원로식구는 “참아버님의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리지는 않나?” 하는 위기감이 격화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참어머니」를 통해 「참아버지」와 연결된다고 하는 원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하늘의 소원과 맞지 않았을 때 참아버님은 자녀 대신 「참어머니」를 질책하여 문제를 수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령실체이신 「참어머니」가 자녀의 부족을 중재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26~28)

참아버님은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지시하기를 『당신은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당신의 내적인 면이 나타난 것이 자녀들인데, 자녀들의 교육은 당신이 책임지소』 이랬다구요. 문제가 생겼으면 대변에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아빠가 지적하지 않고. 그런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참부모님의 생애노정⑩』 422~423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에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문제가 일어날 경우 아버님은 자녀님에 대신 어머니를 지적하여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의 훌륭함은 참아버님께서 어머니를 대신 질책하셔도 그에 대해 한 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아버님에 대해서 어디까지라도 순종으로 따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어머님의 내적 자세에 대해서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위하는 사랑을 가진 대표적 여성을 찾아 보니 어머니가 모든 면에서 맞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문충재의 눈이 그렇게 가짜가 아니라구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목소리도 아름답고 모습도 우아한 거라구요」(『참부모님의 생애노정⑩』 45 쪽)

「통일교회 여러분보다도 어머니가 선생님을 더 믿는다구요. 통일교회 여러분이 나를 믿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나를 더 믿는다구요. 모든 면에서 존경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구요」(동, 413 쪽)

「아버님은 사랑을 정복하고 복귀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심정복귀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스스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고 끝내 승리하였습니다」(천일국경전『참부모경』 202 쪽)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한 마디 변명도 없이, 신앙과 감사의 삶을 살아오신 참어머님의 내적 자세를 상속하고 “뉘어야” 하겠습니다.

(29)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논리의 악용에 대하여——재림주가 다음 대에게 연장되는 섭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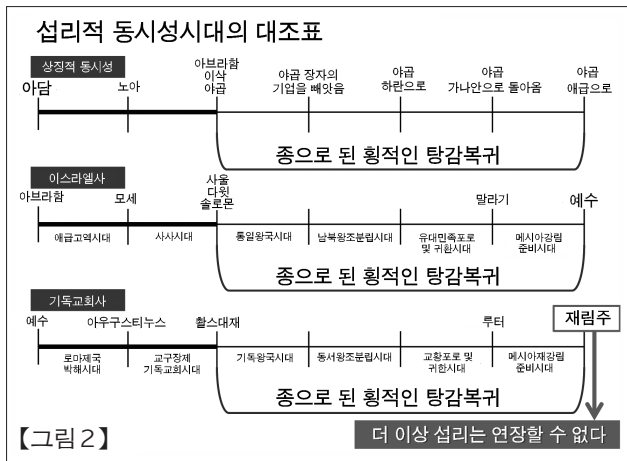
소책자 No.1 의 4~6 쪽에서 취급한 문제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정을 걷는 것이 참아버님입니다. 그 후 요셉노정을 걷는 것이 형진님이고, 나아가 에브라임노정을 걷는 것이 신준 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생츠퍼리교회 측의 언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언설과 유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꼭 그룹입니다. 2014 년 6 월 18 일, 카미야마 타케루(고인)는 꼭 그룹 측이 부산에서 거행한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원절에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님께서 노생, 장성, 완성, 마지막 하나님의 결혼식을 참아버님이 얼마나 그대를 기다렸다고 보니까? ……기원절은 1 월 13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영계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원통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적인 역사의 실패를 상징현재로 탕감함으로써 구약시대의 출발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횡적으로 탕감하기 위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횡적으로(섭리가) 연장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아버님, 다음으로 자녀님, 그리고 3 대까지, 1 대, 2 대, 3 대로 하나님의 가정,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원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미야마 씨는 참아버님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성화하셨다고 결론을 짓고, 마치 아브라함의 상징현재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장된 것처럼 현대에도 섭리가 참아버님, 자녀님, 손주님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리강론』이 논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407 쪽)의 논리의 악용이며, 잘못된 언설입니다. 이들 생츠퍼리교회 측 및 꼭 그룹 측의 언설은 모두 『원리강론』이 논하고 있는 「원리」로부터 이탈한 비원리적 주장입니다.



「섭리적 동시성시대의 대조표」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담으로부터 굵은 선으로 표시된 아브라함까지가 본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상징 현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섭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원리강론』에는 「만일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위한 긍정적 기대’를 뜻 맞게 세웠더라면 ……그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상징

현재’에 실수함으로써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252 쪽)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שראל사에서 사울 왕 때 「이שראל 선민들이 사울 왕을 중심한 그 ‘믿음의 기대’ 위에서, 성전을 받들고 나아가는 이 국왕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실체기대’를 조성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을 것이었다」(『원리강론』 439~440 쪽)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불신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것을 종으로 된 횡적 탕감기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통일왕국시대 120년, 남북왕조분립시대 400년, 이שראל 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 메시아 강림준비시대 400년을 찾아 세워 가고 **마침내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422 쪽)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שראל사에 있어서 사울 왕 이후의 역사는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역사이며, 이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득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 제 3 아담으로 **재림하셔야 할 것을 ……(노아의 비둘기 섭리로) 기록되어 있는 7 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섭리적인 어떠한 기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아니된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280 쪽)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승리하지 못할 때에는 섭리를 바로 다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שראל사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사에서도 『원리강론』에 「**카알대제가 이 기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기독교상을 실천해 나아가면 ……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이와 같이 되었어야만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었다**」(441 쪽)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재림주는 그때 오셨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함으로써 ‘실체현재’를 하기 위한 아벨의 위치를 떠났었기 때문에 ‘실체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441 쪽)라고 한 것처럼 섭리는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연장되어 현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사에 있어서도 카알대제 이후의 역사는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

역사이며, 이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림주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참아버님께서 승리하시지 못했을 경우 그 섭리를 바로 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섭리처럼 참아버님, 자녀님, 손자님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츠했어리교회 측이나 꼭 그룹 측과 같이 섭리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리」로부터 일탈한 비원리적 언설입니다.

『원리강론』은 「재림주는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으신다 하여도 초림 때와 같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참부모님을 세우시어 창조목적의 이루시려는 섭리는, 아담에서 예수님을 거치어 재림주님에 이르기까지 세번재인 재림 때에는 의당 그 섭리를 이루시게 되어 있으며」(393 쪽)라고 논하고 있으며, 재림주의 섭리에 있어서는 이 이상 연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숙지하고 계시는 참아버님은 「거짓 부모로부터 피살을 받음으로써 망국의 환경이 되어 버린 사탄 세계의 영계와 육계를 ……수리해야 할 책임을 진『참부모』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처럼 수천년간 걸쳐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1대에서 완성하지 못했으므로(선생님) 1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얼마나 힘들니까?」(「패밀리」 2001년 6월호, 9쪽), 「역사를 1대에 해결해야 됩니다. 1대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몇 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1대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가정이 1대에 승리하지 않은 것을 역사적 총탕감하여 선생님 1대에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동, 13쪽)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아버님은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불면불휴”로 생애를 사신 「역사적으로 총탕감」한 승리를 하셨으므로 2012년 8월 13일, 「다 이루었다」(천일국경전 『천성경』 1646쪽)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당신의 생애와 복귀역사 전체를 총괄하는 역사적 선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님께서 “미완의 메시아”인 것처럼 논하여, 아버님을 그렇게 한 원흉은 참아버님이라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인류역사상 없었던 최대·최악의 “불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생츠했어리교회 측이나 꼭 그룹 측의 사람은 「참아버님께서 『참부모』로서의 승리 기준을 세우지 않으시고 성화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님은 승리하시고 성화하셨다고 응답해도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아니다. 자녀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자녀님을 말씀을 우선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일절 굽히지 않습니다.

참아버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시대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 이름 아래 절대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연결돼요」(『주요의식과 선포식Ⅲ』 120쪽)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참아버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녀님을 옹호하는 그들의 마음 바탕에는 참부모의 승리권을 부정하고 있는 자녀님(꼭그룹은 현진님, 생츠했어리교회는 형진님)의 “불신”을 정당화하고, 자녀님의 현재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비원리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과 “불순한 동기”에 의한 비원리적인 행동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0) 「제2대왕」을 자칭하는 것은 「만왕의 왕」에 대한 반역행위



사진 20

2012년 4월 14일, 참아버님은 라스베이거스의 천화궁에서 「특별선포식」을 하고, 「문선명, 한학자라는 두 사람이 타락이 존재하지 않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이전의 위치로 돌아갔다」고 선포하셨습니다【사진 20】.

참아버님은 7일 후인 4월 21일, 한국에서 「천지인참부모님특별집회」를 개최하시고,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인참부모정착 완료」가 이 책(강연문)의 제목입니다. 천지인이 참부모가 되어 정착하는 교재·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판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한 번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격을 가지고 마지막 만왕의 왕과 부모의 조상 중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승리의 패권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억천만대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부부지 둘이 아닙니다. 부부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만왕의 왕들,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만왕의 왕은 한분입니다. 「여성 존중시대가 옵니다. 어머니를 중심삼고 뒤집는 것입니다. 남녀가 동등하고 대등한 가치의 실권을 만드는 것입니다」(「KMS 중화신문」 2012년 4월 27일호)

참아버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억천만대에 걸쳐 오직 하나의 부부지 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은 한분입니다」라고 하시며 천일국에 있어서 「만왕의 왕」은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천만대에 걸쳐 오직 하나의 부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츠했교회에서는 2015년 8월 30일(성화 3주년 기념), 「제2대왕권대관식」을 거행하고, 그 이후 그들은 형진님을 「제2대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억천만대에 걸쳐 단 하나의 부부지 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은 한분입니다」라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2대왕」이라고 칭하는 것은 참아버님에 대한 반역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요사스러운 짓거리는 그들이 참아버님을 본질적으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 「어머님은 육적 타락을 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생츠했교회는 참아버님께서 2009년 7월 14일에 말씀하신 「엄마가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을 엄마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참어머님은 육적 타

「**죽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참아버님을 폄하려고 하는 말썽의 악용입니다.

이 말썽은 참아버님께서 「어머니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을 어머니 (여성)가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말썽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아버님은 2009년 4월 11일, 「**라스베이가스에서 지금 97%까지 넘고, 3 퍼센트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최종일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전 해, 97 퍼센트까지 넘었다고 말씀하시고, 2010년 6월 19일 (천력 5월 8일)과 동년 6월 26일 (천력 5월 15일)에 「**최종일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도중의 기간인 2009년 7월 14일, 만일 참아버님께서 육적 타락을 하셨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그 시점에서 어머니는 「참어머니」의 자격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입장인데도 2010년 6월, 「**최종일체**」를 선포하시고, 그 승리를 알리기 위해 세계 순회강연을 하실 수 없습니다.

생츠했교회 측은 에덴동산에서 「어머니 (해와)가 타락했다」고 하는 의미로 하신 말썽을 왜곡해석하여 참아버님을 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썽 악용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32)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생명유지장치를 떼어 『안락사』 시키려 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주 : 이 항목에서는 주치의의 동의를 얻어 공표된 공식견해 및 교회성장연구원의 견해에도 바탕색을 넣었습니다)

생츠했교회 측은 참아버님께서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2012년 8월 13~31일)에, 「**참어머님과 간부들이 아버님의 생명유지장치를 떼어 『안락사』 시키려 했다**」고 하며, 참아버님을 “살인자”인 것처럼 비판합니다. 그들은 형진님의 설교를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하여 각 방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큰 싸움을 하면서 아버님을 안락사시키려 했을 때 『안 됩니다. 어머니가 하시면 살인자가 됩니다. 메시아의 살인자가 됩니다』라고 하자 패렸어요, 뺨을 패렸습니다. 나를! 어머니가 나를 패린 것입니다. 설득, 설득, 설득하니까 우리를 불렀습니다. 박보희, 이재석, 김영희, 양창식, 석준호, 김효율, 김효남. 그들을 불러 어머니는 한사람 한사람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버님을 해방하고 싶다』고, 『(생명유지장치) 떼고 싶다』고, 『입술 색깔이 변하고 있다』고, 박보희만 반대했습니다. …… 그런데 다른 이가져들이, 영터들이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자기의 메시아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식구들이 정성을 돌입시다. 단식합시다. 기도합시다』하고 내 (형진님)가 전 세계에 이 메모 공문을 보냈을 때, 여러 분이 정성을 돌리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있을 때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또 국진님을 보고 얘기해 보라고 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50년 해 온 모든 내용을 역사는 어머니를 살인자로 봅니다」

참아버님의 주치의의 동의를 얻어 「투데이스 월드 재팬」 2012년 양력 10월호에 공

표한 석준호 한국회장(당시)의 「참아버님의 섭리적 투병노정」 보고(이하, 「석 씨의 보고」)에서는 입원으로부터 16 일째 되는 8 월 28 일, 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호흡기계통의 한국 최고 의사로부터 「참아버님의 폐 기능회복률이 거의 없다」(74 쪽)고 통달되어, 그날 오후 김영휘 씨, 박보희 씨, 이재석 씨, 석준호 씨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①교회성장연구원의 2016 년 2 월 28 일 영상의 반론에 대해서

교회성장연구원은 병실에 있던 간호사, 병실을 방문한 간부들의 증언, 그리고 형진님을 비롯한 생츠퍼리교회 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2016 년 2 월 28 일의 영상 「참아버님의 생애와 생츠퍼리교회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했습니다.

「(8 월 13 일)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의사가 『도착이 30 분 늦었더라면 어려웠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폐기능은 저하되고, 신장기능은 정지, 이미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고통을 통찰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연명시키는 것을 바라시는 아버님이실까 하고 고민하시고, 생명유지장치를 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진 님, 국진 님은 그러한 모습이 오해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형진 님은 (2015 년 9 월 13 일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50 년간 이 문제를 감추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머니가 아픔과 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님에 대하여 이처럼 복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편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복수』가 됩니까? 이 형진 님의 비판은 참부모님께서 가져 온 부부애, 아내가 가진 『열』의 심정 세계를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참아버님은 『청평에서 3 일 이상 지내고 영계에 가서야 한다』 라고 하시며, 구급차를 개조하여, 청평에 성모병원과 같은 설비를 준비하고 옮겨, 8 월 31 일 오후 7 시에 참아버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눈으로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는 『아버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좋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빛과 손으로 두 분만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9 월 2 일, 참가정이 모여,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부르고,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저녁때부터 혈압, 맥박수가 떨어져 ……4 일째 9 월 3 일 오전 1 시 54 분, 어머니와 더불어 『사랑해 아버님』 을 부르며, 보내 드리는 가운데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머니는 의료장치를 떼라고 지시하셨습니다」(「참아버님의 생애와 생츠퍼리교회 문제」의 영상에서)

앞에서 논한 「어머님은 아버님의 고통을 통찰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연명하시는 것을 바라시는 아버님이실까 하고 고민하시어, 생명유지장치를 떼 것도 생각했습니다」고 하는 부분은 형진 님의 설교정보를 바르다고 가정한 다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주치의의 정보입니다.

②치료를 한 일본인 의사의 증언 및 「참아버님의 섭리적 투병노정」 보고에 근거한 응답

성모병원의 주치의 이외에 참아버님의 치료를 담당한 일본인 의사로 W 의사와 A 의사, T 의사 3 명이 있습니다. W 의사를 인터뷰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W 의사의 증언을 간결히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8 월 16 일, 청심병원 의사로부터 전화로 『D I C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에 대하여 일본에서 원조할 수 있는 의료법은 없는가』 하는 문의가 있어, 일본에만 있는 리코모주린이라는 약 투여가 좋다고 하여, 바로 그것을 준비하여 청평으로 보냈는데, 성모병원 의사로부터 『그런 대상이 아니다』 고 하여 투여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청심병원 의사로부터 25 일과 27 일에 전화가 있어서 『어머님께서 일본으로부터 호흡기와 신장, 투석 전문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6 개월이나 1 년은 와 달라고 하십니다』 고 하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6 개월에서 1 년, 한국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단기간이라도 가서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자, W 의사와 A 의사는 29 일, T 의사는 30 일 방한했다」

W 의사는 29 일 아침, 한국에 도착. 성모병원의 주치의를 만나 병상을 들으니 『오래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는 설명을 들었다. 아버님은 수족을 움직이며, 때로는 눈을 떴다. 그러나 W 의사가 동공에 빛을 비치자 “대광반사” 는 확인되었고, 아픔에 대한 자극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반응은 있었는데, 혼수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JCS III -200 의 상태, JCS: 재팬 코마 스케일).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병실에 들어오는 관계자가 보면 **회복을 강하게 바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아버님은 아직 의식이 있고, 회복할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혼수로 의식이 없는 상태고, 극히 위독하셨다」

이 증언은 「투데이즈 월드 재팬」 게재의 「석 씨의 보고」 와 일치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석 씨의 보고」 에는 8 월 28 일에 한국 최고의 의사로부터 「**참아버님의 폐기능 회복률이 거의 전무**」 라고 통달된 것대로인데, W 의사가 “대광반사” 를 보면 의식이 없고, 그것은 「**거의 전무**」 라고 하는 통달을 뒷바침하는 것이었습니다.

W 의사가 참아버님의 용태를 확인하니, 생명유지장치로 혈압, 맥박은 안정되어 있었는데, 수족의 말단은 혈행장애를 일으켜, 핏기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석 씨의 보고」 와 일치합니다. 그 보고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8 월 3 일, 성모병원에 입원하시어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은 아주 심각하게, 폐혈증, 폐부전에 의해 폐에 물이 차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절대안정』 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사로부터의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은 천정궁 박물관에 꼭 가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하시어 8 월 12 일에 환궁하셨습니다.

환궁 후에는 천정궁박물관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시고, 손으로 만지시면서 이별의 인사를 하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모시고, 마지막 기도와 같은 심각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고 하는 말씀은 하루 사이에 네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주위를 정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인 13 일에는 『 ……청평단지를 둘러보자』 고 하시어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앞까지 갔다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

나 오후가 되자 참아버님의 체력은 급격히 쇠하시어어머님은 눈물로 참아버님께 『병원에 갑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보통같으면 한마디로 거절하셨을 참아버님이셨는데, 그날은 기꺼이 참어머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청심국제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청심국제병원에서 수시간, 요양하시는 사이에도 참아버님의 용태는 더욱 나빠져어머님은 바로 참아버님의 허락을 받아, 다시 종합병원인 서울성모병원까지 참아버님을 후송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모병원 207 호실에 입실하신 참아버님은 바로 응급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심야였는데, 여기저기서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의사들도 5,6 명, 간호사 7,8 명그날 밤 12 시가 지날 무렵이 되어 참아버님은 5 층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심야 1 시가 지나서야 집중치료실에서 나온 정 박사는 『.....30 분 늦었더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라고 참어머님의 깊은 지혜와 빠른 판단을 경탄했습니다.우리들은 서울성모병원 외에 서울대학교병원도 타진했습니다. 그런데한국 최고의 의사들의 결론은아버님의 폐기능 회복률이 거의 전무라고 하여 망연해 하고 있는 현실8 월 28 일이었습니다. 홀로 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통곡하시는 참어머님오후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김영휘, 박보희, 석준호, 훈모님, 김효율, 그리고 참가정의 대표로 문국진 님과 문형진 님. 이 8 명이 참어머님을 모시고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어떻게 하면 참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지상에서 오래 모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영계에) 가시도록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의논했습니다.『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님의 용태를 보호해야 됩니다』라는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8 월 28 일 통달이 있던 다음날, W의사는 성모병원에 도착했습니다. W의사는 참어머님께서 「3 일 이상, 청평에서 지내야 됩니다. 성화해서는 안 됩니다」고 하시어 주치의가 「오래 가지 않을 상태」라고 진단하여, 의식이 없는 중태 상태에서 어머님의 소망이 가능할지 안 할지 심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원이 전술한 영상에서 「8 월 31 일 오후 7 시에 아버님이 (청평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눈으로 어머님을 찾아 어머님은 『아버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좋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은 「아버님께서 눈으로 어머님을 찾아그러자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회복을 강하게 소원하는 것도 있어서 참아버님의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여, W의사에 의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 아버님의 용태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W의사에 의하면 당시 참어머님을 포함하여 누구나 어떻게 하면 아버님이 지상에 오래 계시기를 바라는 시기였으며, 성모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를 떼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떼다면 참아버님은 성모병원에서 성화하시게 되었고, 「성화식」 거행도 어려웠을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계시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 씨의 보고」와 일본인 의사의 증언은 일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 성화 전에 의료장치를 떼라고 지시하셨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츠퍼리교회 측 사람 가운데는 「신뢰성 있는 정보에 의하면 8월 15일 경에는 한 학자 총재의 명령으로 성화식 준비가 은밀히 시작되었다」 등을 말하며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일본의 W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8월 16일, 청심병원의 의사가 전화로 『D I C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에 대하여 일본으로부터 원조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나』고 하는 문의가 있어서 일본에만 있는 리코모주린이라는 약을 투여하면 좋다고 전하고, 그것을 바로 준비하여」 한국에 갖다주고, 나아가 참어머님께서 8월 25일과 27일에 청심병원 의사를 통해 「일본에서 호흡기와 신장, 투석 전문가를 데려와라. 지금 직장을 두고 6개월에서 1년, (참아버님의 치료를 위해)와 주기 바란다」고 연락하시어 전문의를 일본에서 불러 오려 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려고 3명의 의사가 바로 방한한 것입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의 용태를 누구보다 염려하셨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며, 만전의 사태에 대응하려고 하신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하루라도 더 오래 지상에 계시는 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모시고 지켰습니다.

형진 님이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안락사시켜버렸다」 「우리는어머니가 아버님에 대해 이처럼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발언은 참어머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참아버님과 「최종일체」가 되신 어머니를 폄하여, 잘못된 정보로 식구들을 「참부모」로부터 이반시켜려는 “정보조작”을 위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도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아버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선생님이 영계에 가면 어머니를 절대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에 따라 하늘부모님 (하나님)과 아버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전선에 서서 분투하시는 어머니와 일체화하여, 어머니를 도와 드리는 행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최대의 소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3) 천일국의 영원한 중심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다——「참아버지」와 더불어 「참어머니」를 중시해야 한다

①모세노정에 있어서 「두 석판」은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를 나타낸다

참아버님은 「참부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소원해 오신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나? 참부모 기준입니다. 인류가 타락 이후 지금까지 탕감 역사를 해 나온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나?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한 날의 소원을 바라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요, 수많은 종교가 전부 이 한 날을 바라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183 쪽)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뭐냐 하면,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왕국과 지상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안 가지고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은 참부모의 완성과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왕국을 통일하는 것은 참부모의 사명이니,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부모가 못 되었으니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동, 1738 쪽)

「모든 시작은 참부모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 처음은 여러분이 아니라 참부모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거정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참부모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개념이었습니다」(동, 1739 쪽)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이며, 참부모로 말미암아서만이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섭리에 나타나는 상징적, 형상적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부모」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노정에 있어서 「구름기둥」「불기둥」「두 석판」은 참부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원리강론』 335, 339 쪽). 참아버님은 두 석판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40 일간 모세에게 금식을 시켜 두 석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담과 해와, 『참부모』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패밀리」 1998년 4월호, 17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석판은 천주를 상징하는 「법궤」에 들어 있으며 그것은 천주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과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그들은 「참아버지」만을 중시하고, 「참어머니」를 경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법궤」에 석판이 “두 장”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두 분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술한 말씀에 「예수님이 참부모가 못 되었으니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상에서 실체의 「참어머니」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지상·천상천국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이상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세기 2·18)라고 하시고, 제 2의 아담인 예수님의 경우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한복음 14·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섭리에 있어서도 「참아버지」와 더불어 「참어머니」가 현현해야만 비로소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츠퍼트교회 측에서는 “혈통”에 대해서 말할 때 「~~황태후~~ (주: 참어머니)는 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성이며, 혈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여성은 혈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비원리적인 언설입니다.

참아버님은 여성도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어머니 자궁에 붙어서 어머니의 피살을 빨아먹고 컸지요? ……어머니의 피살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어머니 사랑 때문에 어머니 생명 때문에 어머니 혈통 때문에—자기 때문이 아닙니다.—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남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 한 시대예요, 영원한 시대예요? 「영원한 시대입니다 .」영원한 시대 . 하나님의 딸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 절대 「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이니만큼 그 사랑을 중심삼은 대상적 가치 는 절대 가치요, 절대적 상대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앞에 남자는 절대진리의 사랑의 상대체다」(「패밀리」1999 년 11 월호 , 30 쪽 , 말씀선집 303 - 299, 「9・9 절」말씀)

참아버님은 「어머니 혈통 때문에—자기 때문이 아닙니다.—내가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여자도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 생츠했리교회 측이 말하는 혈통의 언설은 혈통에 대해 “부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아버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많게는 남자만이 혈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혈통」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

이미 소책자 No.1 의 2, (2) 에서 논한 것처럼 참아버님은 남자도 여자도 양성의 “생명”이 관여하여 혈통이 생기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생명을 봤습니까? 생명을 만져 봤어요? 생명체는 보이지만 생명은 모릅니다 . 만져 볼 수 없습니다 . 혈통도 그렇습니다 . 혈통은 부부가 사랑하는 그 밀실 , 안방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서 결합할 때 혈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패밀리」1995 년 3 월호 , 22 쪽)

「혼자 혈통이 연결됩니까? 이 혈통은 남자의 피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패밀리」2001 년 3 월호 , 21 쪽)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이어받은 곳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 이 난자와 정자가 하나 된 곳에 , 사랑으로 뿌리가 생겨서 발생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패밀리」2007 년 3 월호 , 7 쪽)

참아버님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생명이 연결 , 즉 「혈통」은 사랑을 중심삼고 정자와 난자가 하나 된 곳에서 출발했다고 생리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바로 단 정자와 난자의 생리학적 차원의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 더 깊이 고찰하시어 , 「사랑으로 뿌리가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고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

또 참아버님은 평화 메시지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평화신경』17 쪽) , 「핏줄은 부모가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동 , 28 쪽)라고 말씀하셨는데 , 혈통은 남녀에 의한 양성의 「생명」을 뽑아 내면 살 수 없습니다 . 즉 「생명이 없어도 ,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랑 , 생명 ,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동 , 17 쪽)라고 되어 있는 대로입

니다.

혈통이란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말미암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서 결합할 때 혈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지, 그 “부자관계”에 의한 종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②천국 (천일국)은 참부모를 중심으로 인류가 하나 되어 실현시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노정을 탕감하고, 가나안 복귀를 이룬 여호수아의 노정에 대해서 『원리강론』은 그것이 “재림노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모세의 사명을 대신하고 나선 여호수아는 초림 때의 사명을 계승 완성하러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모세노정을 탕감복귀하는 여호수아의 노정은, 예수님의 영적 복귀의 노정을 영육 아울러 탕감복귀해야 할 그의 재림노정에 대한 표시적인 노정이 되는 것이다」(360 쪽)

가나안복귀를 이룬 여호수아의 노정은 재림노정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노정에 대해서 『원리강론』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두 돌을 받들어다가 가나안 땅의 안정된 진(陣)에 한테 모아 놓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와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수 4·24)고 말하였다. 이것은 장차 돌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열두 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서 하나로 뭉쳐야만,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예시한 것이었다」(362 쪽)

하나님이 “재림노정”을 예시하는 여호수아의 노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재림주인 「참부모」를 중심삼고 자녀들(아벨과 가인)이 일치단결하여야만 세계적 가나안 복귀노정을 완성시켜 영원한 “천일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천국(천일국)의 중심은 하나님과 일체되신 「참부모」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노정에서 예시하셨듯이,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아버님은 2010년 7월 16일의 이른바 「보트회의」에서 「현진이는 선생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 않고 있다. 피해 다니고 있다. 현진이가 선생님의 방향으로 와야 해요」 「현진이가 선생님의 방향에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통일운동은 더 멀고 깊고 더 어려워져 온다. 선생님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세 아들들(현진 님, 국진 님, 형진 님)이 다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이 가는 방향이 아니면 큰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의 문제는 「참부모」를 중심삼고 자녀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

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 그룹 측에 선 사람은 「**현진 님이야말로 장남이며, 후계자다**」고 하고, 생츠퍼리교회 측에 선 사람은 「**현진 님이야말로 정통 후계자다**」고 하며 서로 상대를 견제하는 것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논한 것처럼 참부모에게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는 영원히 하나이며, 그것은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입니다.

또 천일국의 「만왕의 왕」도 하나의 부부밖에 안 계시며, 그것은 하나님과 일체가 된 천지인 참부모님(문선명·한학자 양위분)입니다. 자녀의 입장은 「후계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앙의 “상속자”이며, 참부모의 “대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자녀님이라고 해도 그 정통의 “상속자” “대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과 완전일체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천국의 문은 「참부모」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둘이 있습니다. 지상지옥 천상지옥이 있지만, **천국 문은 하나입니다. 지옥 문이 열린다고 해서 땅에서 천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문이 하나의 천국 문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2201 쪽)

「인류가 거짓 부모로 출발했으므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도 스스로는 천국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안 하겠습니까? 타락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천국을 잃어버렸으니 인간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천년이나 걸린 것입니다.**」(동, 678 쪽)

천국의 문은 하나이며 그것은 「참부모」입니다. 전술한 말씀에 「**모든 시작은 참부모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 처음은 여러분이 아니라 참부모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거정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참부모입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모든 시작의 기준을 「참부모」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님의 소원에 따라 「**나야말로 부모님과 자녀님 사이를 중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동은 출발점, 축을 자녀님에게 두는 것이지 「참부모」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언동은 “하늘의 소원” 으로부터 어긋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참아버님은 현진 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곽 그룹**」이라고 표현하시고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녀가 부모한테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참아버님도 생츠퍼리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만에 하나도 이러저런 말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자』고 (누군가가) 말을 해도 그에 대하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님을) 도와 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투데이즈 월드 재팬」 2015년 양력 9월 10일호, 4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녀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참부모님의 아들을 빼앗는 장본인이고, 참부모님과

자녀님 사이를 갈라 놓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

그 사실을 우리들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원리강론』의 여호수아의 노정에서 논한 것처럼 「장차 돌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열두 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서 하나로 뭉쳐야만 ,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예시한 것이었다」고 하는 “천국실현의 길”을 바라보면서 뜻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

③참아버님과 지상에서의 최후의 생활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 참아버님은 「참아버님과 지상에서의 최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참아버님은 생애에 당신을 돌아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구원을 위해 당신을 불살랐습니다 . 그렇게 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 참부모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고 , 하나님이 직접 이 지상과 영계를 통치하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

그리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한 생각으로 일심으로 오로지 위하여 사는 삶을 , 몸을 돌보지 않고 1 분 1 초를 아까워하며 언제나 시간이 없고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사셨습니다 . 그렇게 지냈으므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지도 못하고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았고 , 육신이 필요로 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 참아버님은 원래 아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관리만 제대로 하셨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도 , 최근 몇 년간은 『하루가 천년 같이 느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바빠하셨습니다 . ……

올해 (2012년) 8 월초 , 병원에서 10 일간에 걸쳐 모든 검사를 마치고 …… 퇴원하시어 천정궁박물관에 계시던 하루 , 참아버님은 주위의 보좌관들에게 『오늘은 엄마와 마주 앉아 식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언제나 나는 참아버님 옆에 앉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만 , 그날만은 『마주 앉아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식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 그렇게 식사 자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 그렇게 했는데 , 참아버님은 식사를 드시지 않고 내 얼굴만을 가만히 응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 아마도 참아버님은 마음 속에 내 얼굴을 각인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 나는 가슴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만 미소를 띠면서 『이것도 저것도 맛있어요 . 드세요』라고 권했습니다 .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 나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 ……

가끔 말씀 가운데 『내가 영계에 갈 때가 되었다 . 나는 갈 때를 알고 있다』 등의 내용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 그러한 준비를 하신 마지막 기간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 이것은 참아버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나의 일화입니다만 ,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많은 사정을 참아버님과 더불어 해온 날들이었습니다 . 식사를 하실 때에는 나도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셨는데 , 나를 의식해서 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드셨습니다 . …… 『좀 쉬세요』라고 권해도 『엄마 무릎에서 쉬고 싶다』고 하시면서 , 선잠을 자기도 했

습니다. 건강하실 때에는 전혀 하시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을어린이가 어머니를 필요로 하여 의지해 오는 것처럼,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버님이 성화하신) 지금, 매일 참아버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평소 좋아하셨던 된장찌개나 반찬 등을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권하면서 밥상을 차려드리고 있습니다(시묘정성의)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정성을 다하여 모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신 그 순간 나는 참아버님께서 인류를 위해 소원하신, 뜻하신 내용을 내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성취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위해 지금 나(어머님)는 바쁩니다」(「투데이스 월드 재팬」 2012년 11월호, 14~18쪽)

참아버님은 지상에서의 생애노정을 마칠 무렵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신 참어머님과 같이 지내겠다고 하시어, 어머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은 아버님의 생애의 소원이신 천일국 실현을 이루고자 지금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최종일체」를 이루신 참부모님을 절대중심으로 하여 비전 2020(아버님의 성탄 100년 기념)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정성을 들이며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자세로 가야만 지금 독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녀님 문제도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수습되어 갈 것입니다.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2

2017년 12월 1일 초판 제1쇄 발행

發 行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發 売 株式会社 光 言 社
〒 150-0042 東京都渋谷区宇田川町 37-18
電話 03 (3467) 3105
<https://www.kogensha.jp>

©FFWPU2017